

생활 물건 세 개로 만드는 두 언어 전시 — 나의 탐구 노트

똑똑 · 에디터 이음 · 발행 2026.09.28

설명을 줄여도 물건의 특징과 맥락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름·작성일:

나의 탐구 질문:

제출 형식·분량:

선생님의 평가 기준:

AI·도구 사용 허용 조건:

중학교 시작

자신이 만든 작품 또는 허락받은 생활 물건 세 개를 한 주제로 묶고 짧은 한국어·영어 설명을 씁니다.

고등학교 심화

청중의 사전 지식과 전시 순서를 고려해 두 언어 설명의 정보량을 맞추고, 관람 과제의 결과로 발표를 수정합니다.

준비 순서

1. 예컨대 쓰기 도구의 변화처럼 관찰 가능한 주제를 정합니다. 물건 사진은 직접 찍거나 사용 허락을 받고 실명·주소를 가립니다.
2. 각 물건의 명칭·관찰 특징·선정 이유를 먼저 한국어 사실표로 맞춥니다. 영어판은 문장 길이보다 같은 핵심 정보가 남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역사 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2분 발표 또는 리플렛으로 전시 순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짝에게 공통점 하나와 차이 하나를 찾게 한 뒤 설명의 누락·중복을 수정합니다.

1. 전시품 기록표

물건·제작자	직접 관찰 특징	선정 이유	사진 이용조건	모르는 정보

2. 두 언어 발표표

전달할 핵심	한국어 설명	영어 설명	순서·화면	독자 확인 결과

청중과 핵심 메시지

도입 질문

근거와 시각 자료

마무리·예상 질문

자료 기록

제목	작성자·기관	발행일	주소·쪽수	확인한 근거	확인 날짜

도움 받은 부분과 나의 수정

도움의 출처 / 활용 범위 / 검증한 내용 / 수정 전후 / 나의 판단

제출 전 점검

- ☐ 두 언어판에 날짜·수량·기능이 다르게 적히지 않았나요?
- ☐ 전시를 실제 박물관의 공식 해설이나 인증 자료처럼 꾸미지 않았나요?

참고 자료를 찾을 곳

Smithsonian · 사물 기반 관찰 — <https://learninglab.si.edu/help/learn>

사물의 형태를 관찰하고 질문을 만드는 방법 안내. 전시품의 명칭·시대·제작자는 각 소장품 기록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British Council · School poster project — <https://learnenglishteens.britishcouncil.org/skills/writing/a1-writing/school-poster-project>

청중·목적이 보이는 짧은 영어 안내를 읽는 참고 자료. 영어 수준 표시가 이 활동의 학교급 적합성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똑똑 · 큐레아 / 자체 제작 활동지 / 학교의 공식 평가 양식이 아닙니다.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projects/bilingual-mini-exhibit>